

12/27/2020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에스더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1.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2020 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팬데믹의 풍파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2. 이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더럽힌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단호하게 버리게 하옵시고 새 해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3. 긍휼의 하나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승리와 소망 안에 살게 하옵소서.
5. 모든 중보자들을 정결케 하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천상육목사님, 2 & 3 부: 김대규목사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 57:7]

1.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흠향해 주옵소서 주님!
2. 찬양팀과 율동팀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과 율동이 되게 하옵소서.
3.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문기훈목사님, 이정호목사님, 설성훈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김성웅장로님, 문덕상장로님, 임명수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히3:14)**’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한 성도도 낙오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완주하게 하옵소서.
3. 팬데믹으로 닫혀진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도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4.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5. 말씀을 통해,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째 새벽기도 (4/10/2021 까지)

송구영신 예배 : 12/31 10:00pm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설교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모든 예배 제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들려지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옵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18)의 말씀처럼, 모든 예배자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죄악과 불순종, 그리고 게으름의 끈이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체험하고 영혼육이 소성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리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5.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제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뒤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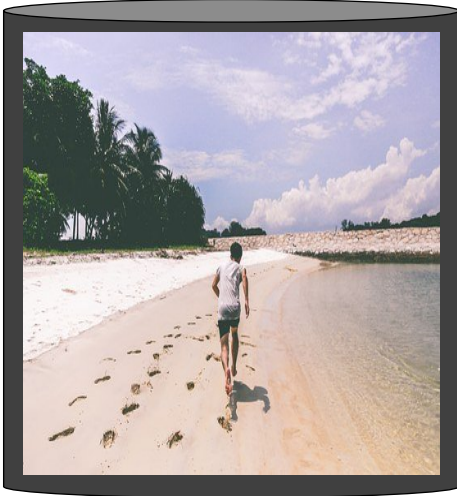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1. 헌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마다,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더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공예배와 일상의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2.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를 통해 매일 매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남은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4.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송년주일을 맞아, 불신앙의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새로운 각오로 2021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3.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4. 청소년들을 각종 유혹과 중독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5. 공교육을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6.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온라인 학업이지만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1.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낙담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옵소서.
3. 예배를 통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4. 가족들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6.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7. Jesus' Light 성도들을 위한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긴급기도 : 김종미 전도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심령을 밝히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3. 선교사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덮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함께 준비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2.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현지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3.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4.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 사랑으로 가슴이 뜨겁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박원근 선교사님/ 황광식 선교사님(케냐)- 교회 옆에 땅으로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건축이 중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백승환 선교사님 (아르메니아): 무력충돌이 끝나도록/피난민들을 위해/전쟁으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 김태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 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 - 성전 건축 : 골조 공사 마무리 되었고 외벽/ 내부 공사 및 안전을 위해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김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운섭 선교사님 비타 비타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 이에신 선교사님 (A 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정광수 선교사님 식도암 • 박경희 선교사님(n 국) 내년 1월 유방 종양 제거 수술(4 번째) 계속해서 갑상선과 유방에 자주 양성종양이 생기는 체질을 고쳐주시도록	• 강 00.이 00 선교사님(T 국) 강 선교사님은 우울증으로 3 달째 약을 복용 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로시스크) 허리, 목, 디스크 치료 중이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님(태국) 턱에 혹이 생겨 제거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가슴과 갑상선에 있는 혹들이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위한 기도

1. 이 나라의 리더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은 문제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에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기도합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명확히 밝혀지고 징계 됨으로 다시는 선거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새 행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게 하옵소서.
3. 내년 1월 3일, 조지아 주 2석을 놓고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연방상원 다수당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4. COVID-19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면 예배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손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부흥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5.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맞는 2020 성탄절에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 미 워싱턴, 200명 예배 제한 '의무' '권고'...하향조정

미국 워싱턴 주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23일 발표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실내 예배 금지 해제

대법원 판결 따라 야외 뿐 아니라 실내예배도 허용

• 올해 미국 인구, 코로나 여파로 120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

• 남성 3명 '마스크 미착용'에 입장 거부하자 AK47 소총 보복 난사

• 성탄절 새벽 대형 폭발사건...테네시주 내슈빌서 발생: 크리스마스인 25일 아침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이 폭발했다. 3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통신장비가 생겨 일부 911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항공기가 발이 묶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국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행동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은 펜데믹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모임들이 제한받고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 부서들이 온라인으로 송년모임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온 가족 성탄 감사예배와 금요성령집회와 금년 마지막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은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가운데 영감을 받고 사역할 때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큼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살피며 기도해 주는 사역은 목양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기에 늘 한계를 느끼며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전해오는 기도제목들은 더욱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펜데믹으로 갈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모든 것이 비상사태이지만 우리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일천번제 새벽예배를 드리고, 오전 11 시에는 온 가족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저녁 7 시 30 분에는 금요성령집회를 하면서 성탄절에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난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기에 참된 예배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펜데믹 가운데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달려 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2020 년 12 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이 교회 내에서 모이던 사역들이 제한받았지만 온라인으로 사역들이 진행되며 최선으로 섬기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 해에는 코로나 펜데믹도 소멸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를 잘 드리고 계속되는 일천번제 새벽기도와 신년 주일예배와 은혜이슬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펜데믹 가운데 은혜의 풍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우리 마음에 한가지 소원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수 있을 것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쓰지 못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축복가운데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축복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예에서 이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밋세바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 일까요? 사울은 회개할줄 몰랐지만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회개의 목적은 성신을 건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도덕적으로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하여 죄를 지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 년을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섬김, 나의 행함을 되돌아켜 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지은 죄를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말아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분께서 우리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중
김광신 목사 드림



뜻하지 않은 훼방꾼

반테를레이 데 리마(Vanderlei de Lima)는 참 왜소한 남자입니다. 키가 167 센티미터 정도에 몸무게도 53 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몸집은 작을지 몰라도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 - 바로 리마가 2004 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동메달을 땀던 곳 - 보다 더 큰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은 그가 금메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리마는 줄곧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그 일은 결승선을 5킬로미터쯤 앞둔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중 속에 있던 아일랜드 출신 훼방꾼이 갑자기 튀어나와 리마에게 달려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리마는 얼른 다시 경주를 시작했지만 뜻밖의 사태로 리듬을 잃었고 선두를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기쁨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체구에 큰마음을 가진 이 브라질 선수는 어린아이처럼 감격스러워하며 유서 깊은 스타디움에 입장했습니다.

바울은 부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험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쳤습니다.

정상적인 코스에서 밀려났지만 경주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신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지만 누가 모든 일의 주관자인지만큼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대처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운동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 분명히 달려 나가야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 달려갈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시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란 무엇이나? 우리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주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 : 믿음의 경주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는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 쉽습니다. 인내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가령 다른 차량이 도로에서 우리를 가로 막을 때, 우리가 불공평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 등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들과 시련에 직면하면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성급함이 거룩한 분노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는 칭찬받을 만한 덕목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 5:14)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22) 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가 소극적인 기다림 또는 친절한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대부분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1 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자세로 누가 와서 쫓아 주어야 달리거나, 뱀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친절하게 눈 감아 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인내”로 번역된 단어는 “견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시련을 견뎌내거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하룻밤 사이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인내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11 은 우리가 “모든 견뎌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야고보서 1:3-4 에서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알려 줍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때를 신뢰함으로 더욱 발전하며 강해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내심은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시편 37:7)를 만날 때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국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야고보서 5:7-8) 보상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을 베푸시도다” (에레미야 애가 3:25).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내로 특징지워진 많은 사람들의 실례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10). 그는 또한 욥의 인내와 주께서 보상으로 주신 결말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11). 아브라함 역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15).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래 참는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인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일반적으로 “왜 나입니까?”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4; 베드로전서 1:6). 둘째,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위해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성장과 주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로마서 8:28 과 같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교통 체증 가운데 있을 때, 친구에게 배신 당할 때, 또는 당신의 증언이 조롱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스트레스, 분노 및 좌절로 이어져가는 성급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적인 반응”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 대신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과 목적에 대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인내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힘을 얻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7).

By John Piper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 은혜 한인교회 중보기도국

문의 : gracewpc.com